

농어촌공사 장성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김상옥 기자 | 승인 2025.02.27 19:34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[농축유통신문 김상옥 기자]



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26일 장성지사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<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제공>

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(지사장 윤영일)는 26일 장성지사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과 함께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

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및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지원을 받아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한 청년 농업인은 "농지은행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"라고 말했다.

장성지사는 농지은행의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을 통해 지난해 53농가에 37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,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윤영일 지사장은 “장성군의 미래라고도 표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 향후 전업농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청년농업인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'2025년 선임대-후매도사업*'의 1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.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저작권자 ©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상옥 기자